

에릭 휘슬(Eric Fischl)의 「비둘기의 삶」, 구조분석과 해석

오 세 권 *

- I. 서론
- II. 에릭 휘슬(Eric Fischl)에 대한 예비적 고찰
 - 1. 에릭 휘슬 작품에 대한 평가
 - 2. 포스트 모더니즘과 에릭 휘슬
 - 3. 에릭 휘슬 작품의 특성
- III. 작품 「비둘기의 삶」의 구조분석
 - 1. 분석 검증의 도구
 - 2. 작품 형식의 기본구조 분석 (통사부 분석)
 - 3. 작품의 의미부 분석
- IV. 작품 「비둘기의 삶」의 해석
- V. 결론

I. 서론

에릭 휘슬(Eric Fischl)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가 미국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기 에 미국적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개 속에서 이해 되어야 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에릭 휘슬의 작품세계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야기 또는 사진과 같은 펼쳐내는 형식' 과 '미국 중산층의 사회적 심리성' 을 표현한 것이라는 사회 심리적 논의의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반적인 작품 분석 방법인 작가 의도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정신 분석방법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기에 작가의 가장 가까운 일 반론에서 한정되어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건양대 겸임교수,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예술학)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하여 에릭 휘슬의 작품 가운데 그의 작품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작품 「비둘기의 삶」을 선택하여 중심 주제의 해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자기 한정적이고 스스로가 주체의 역할을 하였던 근대적인 주체를 넘어서 오히려 주체를 상실하고 분열되어 가는 20세기 후기 미술의 양상도 밝혀낸다.

곧 3차원적인 자연의 재현이나 자기 한정적인 모더니즘 미술에서는 확고했던 하부구조의 확실성에 대하여 작품의 기반을 이루는 하부구조가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없어 상부를 고정시키지 못하여 중심 주제가 해체되며 주체가 분열되어 가는 현상을 에릭 휘슬(Eric Fischl)의 작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둘기의 삶」의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이 작품 속에 담겨있는 '주체'가 어떻게 분산, 이산, 해체되어 의미가 복수화되거나 다중성을 띠면서 20세기 후반 예술 정신인 '주체의 분열'을 담아내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먼저 2장에서 예비적 고찰로서 에릭 휘슬의 작품세계에 대한 평가와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관계 그리고 작품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3장에서는 작품 「비둘기의 삶」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본다.

II. 에릭 휘슬 (Eric Fischl)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에릭 휘슬 작품에 대한 평가

에릭 휘슬은 1948년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캘리포니아 인스티튜드 오브 아트에서 미술을 전공하였다. 그의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캐나다 노비스코샤 미술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면서 가진 작품전들에서이다. 그리고 점차 그의 명성이 뉴욕과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나아가 그는 휘트니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파리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등 주요 국제전에 초대 출품되었다.

에릭 휘슬의 작품세계를 비평가들이나 미술사가들은 대체로 '미국 중산층의 병적인 징후를 소재로 하여 미국적 사실주의로 그렸다', '미국 중산층의 풍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태와 내밀한 욕망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러한 평가 가운데 ‘외설적 에로티시즘’, ‘외설을 통한 사회심리성의 표현’, ‘잠재 의식과 훔쳐보기’ … 등의 용어들은 에릭 휘슬의 작품세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에릭 휘슬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캐롤 스트릭랜드(Carol Strickland)는 ‘중산층의 심리극’¹⁾이라고 하였고, 데이비드 홉킨스(David Hopkins)는 ‘병치 된 사진의 회화’²⁾ 분야에 에릭 휘슬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조나단 피네베르크(Jonathan Fineberg)는 ‘펼쳐진 이야기’³⁾ 도니 건프리(Tony Godfrey)는 「뉴 이미지 페인팅」에서 ‘미국문화에 대한 도덕적 접근’, ‘도용의 표현’⁴⁾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에릭 휘슬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의 관점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그의 작품 표면에 나타난 이미지의 내용성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의 표현 형식에 있어서 주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평가는 아직 유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포스트 모더니즘과 에릭 휘슬

포스트 모더니즘은 1950년대 이후부터 주로 건축이론가들 사이에서 최초로 언급되어 졌는데 1970년대 이후부터는 후기구조주의 내지는 해체주의자들에 의해 그 논의가 치열해져 갔다. 그 가운데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추어져 은폐되고 억압되어 있던 가치와 정신병자, 광인, 동성연애자 등의 권력으로부터 억압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해체’적 방법론을 주장한 사람은 데리다(Jacques Derrida)였다. 그는 서양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인 지적 전통을 ‘현전의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이를 해체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차연(differance: 差延)⁵⁾으로서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에 의해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과 사고들인 형이상학, 동질성, 주체, 절대적인 진리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등장하면서 후기 예술의 정신이 형성된다.

1) Carol Strickland, *The Annotated Mona Lisa, a course in art history from prehistoric to postmodern*, John Boswell Management Inc., 1992.

2) David Hopkins, *After Modern Art 1945-20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 Jonathan Fineberg, *Art Since 1940*, Calmann & King, Ltd, London, 2000.

4) Tony Godfrey, 「뉴이미지 페인팅」, 『포스트 모던 미술과 비평』, 서성록 편, 승례문, 1993.

5) 자끄 데리다, 「해체」, 김보현 편역, 문예출판사, 1996, pp.118-159에서는 ‘차연’이란 시각화되면서 생기는 지연과 공간화에 따른 차이를 뜻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당시 후기산업사회의 논의와 정치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쇠퇴, 냉전시대의 종언을 들 수 있으며, 사회에서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여권신장 운동, 마약, 청소년 문제 등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의 상황을 담아내는 예술에 있어서도 커다란 전환점이 이루어져 갔다.

미술문화에 있어서도 그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동안 모더니즘 회화는 캔버스의 2차원의 평면 공간에 짜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더니즘 회화에 대하여 클라멘트 그린버그는 회화 예술이 독특하게 독자적으로 가지는 것은 오직 평면성이라고 주장하였다.⁶⁾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은 평면성을 해체하고 그 해체는 퍼포먼스, 설치, 환경미술뿐 아니라 미술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기적 미술경향은 자율적 총체로서의 인간 주체의 죽음을 선언한 후기구조주의 사유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미국의 작가들은 뉴욕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미술의 경향을 발전시켰으며 뉴욕의 일상을 그렸다. 이를 당시에는 '뉴페인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이들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격렬한 제스처, 차용, 알레고리, 과거의 신화와 역사의 표현 등은 유럽적 구상주의를 재현시키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회화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지역, 특정 종교, 사상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의 세계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이 시도된다. 곧 고급예술, 역사, 정치라고 하는 고양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책자, 연애소설, TV 연속극 등 저속한 이미지가 과감하게 차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국의 '뉴페인팅'을 주도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에릭 휘슬인 것이다.

휘슬은 슈나벨, 샬레, 룡고 ... 등과 함께 미국적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루어낸 작가 가운데 한사람이다. 그는 동시대인들의 풍요로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병적 징후들을 소재로 하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정신적 상황을 새로운 사실주의 기법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는 반나체와 발가벗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육체풍경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으며, 당시 사회문제였던 관음증, 동성애, 근친상간, 자위행위 등의 주제에 적나라한 암시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컸다.

휘슬은 작품에서 미국 중산층의 풍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태와 내밀한 욕망

6) Clement Greenberg, 「Modernist Painting」, Art and Literature 4, Spring 1963, pp.13-14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도시 근교에 사는 중산층 백인들의 벌거벗은 인물들, 정원, 바닷가, 침대가 놓여져 있는 방, 요트 속에서의 휴식, … 권태롭고, 고독하며, 어색하고, 당혹스러운 모습들, 자위를 하는 여성의 성기를 쳐다보는 소년, 한 소년에게 쉽게 몸을 주는 소녀, 결합해 있는 한 쌍… 들 이었다.⁷⁾ 외설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이러한 그의 작품들은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이었는데 사회의 심층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현상을 과감하게 드러내었다. 이는 모두가 같이 속해 있는 당시 사회의 갈등이고 정신과 의식이 고갈되어 불신화된 상태에서 드러내는 욕망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⁸⁾

이와 같이 휘슬의 작품세계는 당시 미국이 처한 사회적 분열 양상과 탈구조화되어 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작품 구조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운 조작은 이산화, 분열화된 사회의 구조와 같이 이미지들의 분열된 상황을 암시하는 듯 하였다.

3. 에릭 휘슬 작품의 특성

(1) 훔쳐보기

휘슬의 작품 가운데 훔쳐보기(관음증)는 주요 테마 가운데 하나였다. 훔쳐보기를 통하여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조리를 작품 속에서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품을 경향을 보자.

작품 「악동」은 바깥의 빛이 블라인드가 쳐진 결 사이로 들어오고 그 빛은 방안과 침대 위를 줄무늬를 이루어 주고 있다. 침대 위에는 한 여인이 발가벗은 체로 몸을 꼬며 마치 오르가즘에 빠진 듯한 몸짓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인에게 어린 소년의 시선은 여인의 수음행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 훔쳐보는 자의 억압적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훔쳐보는 자와 극중 인물의 시선을 동일시함으로써 대리충족을 시키고 있다.

「생일의 소년」은 창밖에서 내 비치는 빛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빛의 조작을 통하여 방 안과 방 밖의 세계를 양극화시키고 내밀한 실내의 여인을 훔쳐보는 자의 입장이 되고 있다. 침대가 있는 방에서 발가벗은 여인이 한 손으로는 머리를 만지고 있고, 다리는 벌리고 누워 있다. 그러한 모습을 소년은 관찰자 입장

7) 「신표현주의의 모던적 특성」, 「미국 포스트 모던 대표작가 4인전」 카탈로그 서문 참조

8) 앞의 책 참조.

에서 여인의 모습을 훑쳐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관람자와 극중인물은 동일시되며 대리충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악동」과 「생일의 소년」 류의 작품은 줄곧 그의 작품 소재가 되고 있다. 그는 이제까지 억압된 욕망의 논리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는데 별거벗은 인체들은 단순히 심리적 도착증에 의한 엿보기가 아니라 자의식으로서 미국문화와 인습적 편견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라 말 할 수 있으며 퇴폐적인 삶의 양식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이때까지 금기시되어 왔던 성문제들의 내면심리를 일상생활을 통하여 '엿보기'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세트성(연극성)

휘슬 작품에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트성(연극성)이다. 이러한 경향을 보자. 작품 「몽유병자」에서는 뒤뜰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장면은 밤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빛의 조명이 자위하는 행위를 극적으로 비추어 주고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 그리고 인위적인 빛으로 인하여 배치된 구도의 의미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작품 「밤의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3개의 광원으로 간접적인 빛과 책상 위의 빛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밖에서 비추어져 벽 위에 비추어진 빛은 구도적 배치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극적 상황을 나타낸다.

작품 「밤 그림자」에서도 빛을 인물로 맞추어 그림을 일종의 세트(연극)처럼 연출해 낸다. 이는 숨겨진 자아의 허구를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무대 세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극적 연출을 위해 매우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연출된 강한 빛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 「개의 흉내내기」, 「클로즈업」 등에서도 나타나는 형상들의 배치가 영화 감독이나 연출자와 같이 이미지를 각색하고 있어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소도구라든가 배경과 인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다소 계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물들의 포즈 역시 연극의 무대 혹은 영화의 극적인 장면처럼 지나치게 자기 도취적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휘슬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별거벗은 인체들은 인위적인 빛의 효과로 인하여 세트화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마치 문 뒤에서의 인체들을 몰래 보고 있는 듯한 심리적 도착증에 의한 엿보기로 연출되어 있으며, 극중 인물과 관찰자가 동일시되는 훑쳐보기의 시점으로 표현되고 있다.

III. 작품 「비둘기의 삶」의 구조분석

1. 분석 검증의 도구

작품의 의미구조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정밀분석하고 나아가 작품 공간 전체를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들의 역할과 그 구조를 밝혀 내어야 한다. 여기서는 담화 기호학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예술학⁹⁾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작품을 '통사부(Syntactics)'인 형식구조와 '의미부(Semantics)'인 의미구조로 각각 구분해서 접근하도록 한다.

하나의 시형상(Visual Image)은 하나의 기호로서 '계열체(Paradigm)'와 '결합체(Syntagma)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조형적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며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형상의 분석과 검증에는 '도구'가 필요하다. 분석 검증을 위한 도구로서 먼저 '통사부'에서는 계열체와 결합체를 수형도(Tree diagram) 또는 괄호기술(Bracketed description)로 정리한다. 이때 작품 시형상의 이미지 전체를 분절하여 계열화시키는 '계열체(Paradigm)'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햄비지(J. Hambidge)의 '다이내믹 시메트리의 요소들(The Elements of Dynamic Symmetry)을 응용하는 동시에 이를 계열체로 표기하기로 한다.¹⁰⁾

9) 김복영은 그 동안 언어학에서 다루고 있는 기호학의 분석 방법을 조형 기호학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해석방법을 제공하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해주는 방법이 '분석 예술학적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 예술학적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호학이나 조형기호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계열과 결합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황금척도로서의 '모듈'(S. V. Moos, 『르 코르뷔지에의 생애: 건축과 신화』 최명길, 민영해 역, 기문당, 1997, p. 294), 그리고 햄비지(Jay Hambidge)의 황금분할을 이용하여 역동 대칭 연구를 발전시킨 Dynamic Symmetry (J. Hambidge, Dynamic Symmetry, The Greek Vas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20, pp. 71-72)를 이용한다.

통사 분석에 있어서 계열체(Paradigms)와 결합체(Syntagms)로 분절시키는 방법은 소쉬르(Saussure) 어휘적 관계와 음소(Phoneme)관계를 밝히는 방법을 차용하면서 특히 통사부 분석은 그레마스(Gréimas)의 담화 기호학의 모델을 시각 기호체제로 바꾸어 번안한다. (A. J. Greimas, Les acquis et les projets, J. Courtes, Introduction a la semiotique narrative et discursive, paris: Hachette Universite, 1976, pp. 5-26 참조)

작품 내의 색채표기를 위한 색채의 자극값을 기록하기 위한 '모멘트 암' Moment Arm : $MA = [C^2 + (V^2 + (V-5)^2)]^{1/2}$ 의 원리를 채용하면서 이과정과 더불어 명도 차이에 의한 분석도 같이 하는데 이는 색채계획 Programme de Couleur: P(c) (Maitland Graves, The Art of Color and Design, (McGRAW-Hill Book Company, 1951), pp. 282-307)을 이용한다.

그리고 계열체를 확인한 후, 작품 속에서 각 시형상의 계열체들이 어떠한 위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를 수열의 궤도적 표현 (Orbital expression)에 의해 '결합체(Syntagma)로 바꾸어 표기하기로 한다.¹¹⁾

그리고 의미부에서는 통사부의 구조, 곧 통사부 분석을 통하여 분절된 단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분절된 작은 단위부에서 큰 단위부로 나아가 작품의 전체인 거대부분으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각 부분이 함의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계열체는 한 눈에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형도(Tree diagram)로 표기하고, 이를 문장적 형식으로 설명하는 괄호기술(Bracketed description)로 정리한다. 그리고 통사구조에 구별소(Distinguisher)가 되는 개개 이미지들의 시형상을 문장으로 서술하고, 거기에 괄호를 씌워 MA(Moment Arm)와 색채계획(P(c))을 병기한다.

한편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의미의 분석 방법으로는 그레마스의 '기호의 사각형'¹²⁾을 응용하는데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의미소들을 이항 대립의 구조로 파악하여 분석한다.

2. 작품 형식의 기본구조 분석(통사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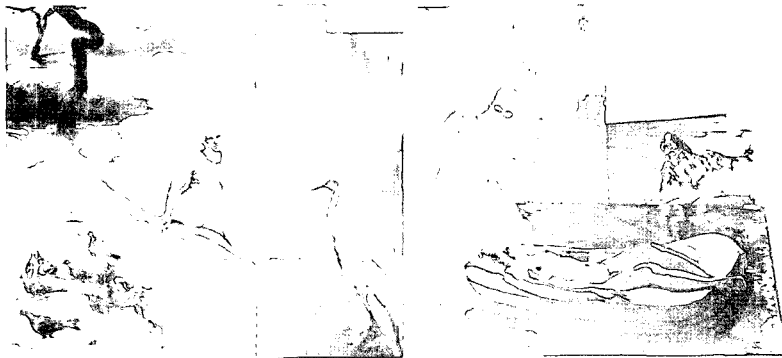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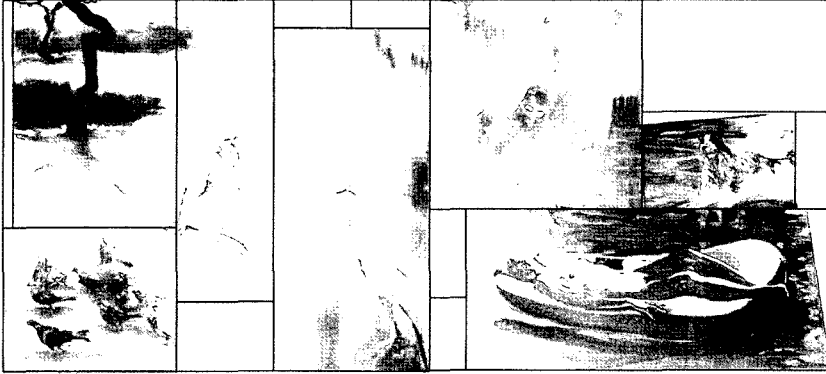
그림1. 에릭 휘슬(Eric Fischl), 「비둘기의 삶」, 『미국포스트모던 대표작가 4인전』, 호암갤러리 카탈로그, 1993

10) Jay Hambige, *The Elements of Dynamic Symmetry*, New York: Dover, 1953. 참조 그리고 'The Elements of Dynamic Symmetry'를 응용하여 계열체 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석예술학 기초 1』, 김복영 편,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미술학과, 2002, pp.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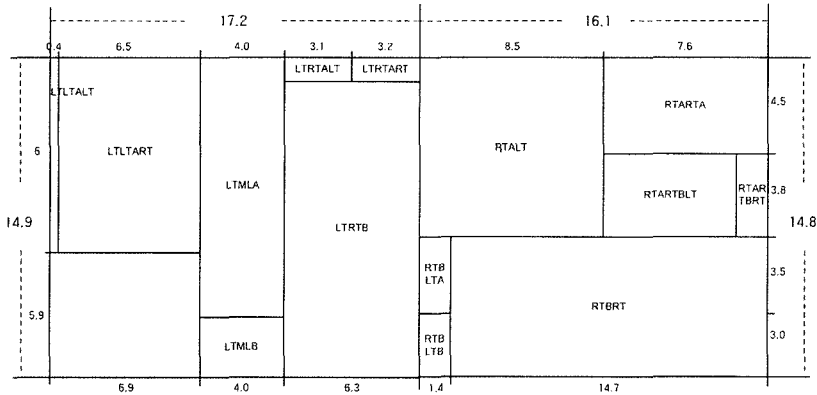
11) 『분석예술학 기초 1』, 김복영편,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미술학과, 2002, 부록부분「시형 행정 신태그마 궤도(표)」 참조

12) 장 마리 플로슈, 「조형기호학」, 박인철 역, 한길사, pp. 27-50 참조.

위 작품 「비둘기의 삶」은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의 분절 형식이 가능하다.



위의 기본 구조는 다음 아래와 같은 면적 비례를 통한 분절의 형식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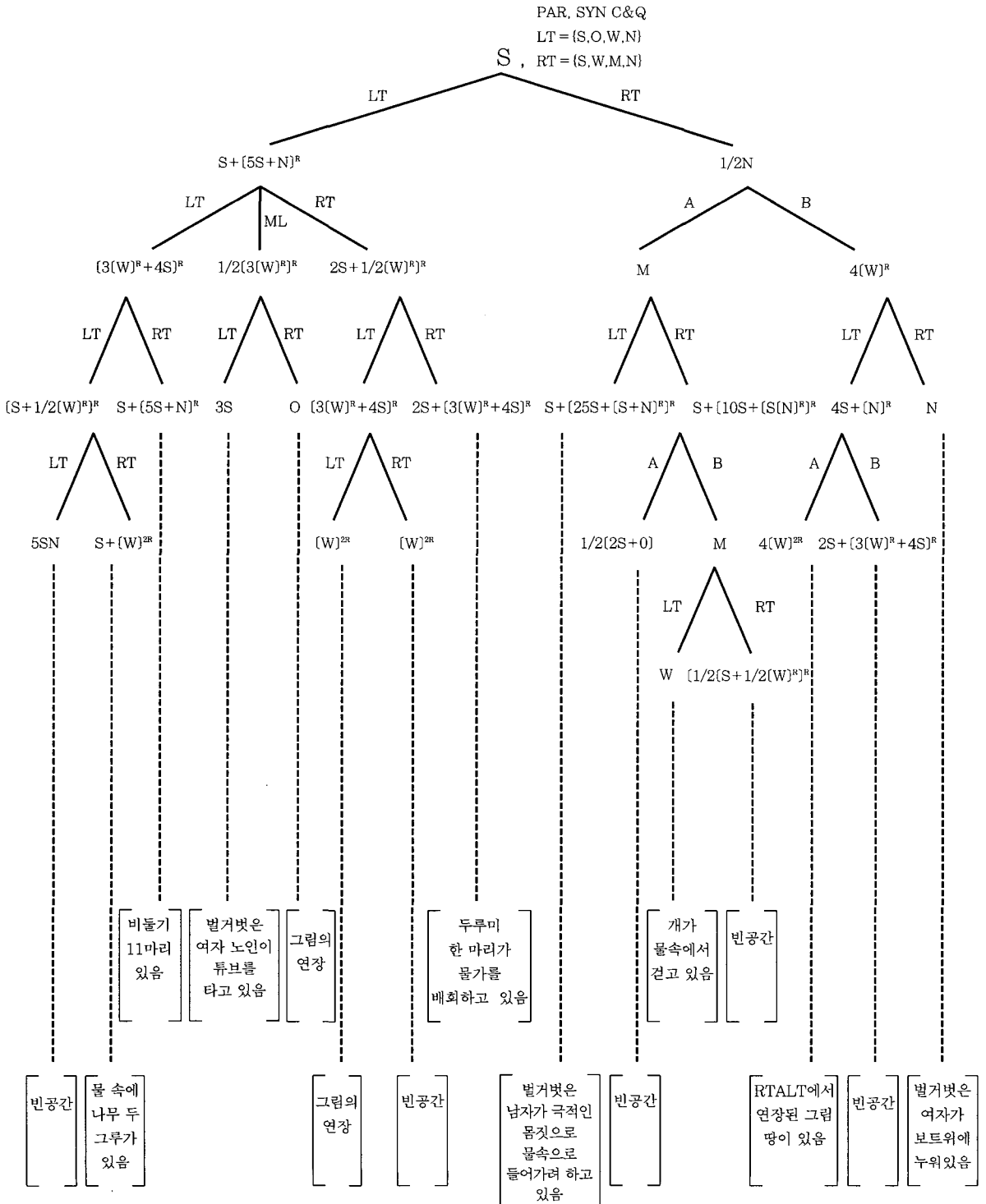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분절에 의한 기본 비례구조와 면적 구조를 통하여 작품 「비둘기의 삶」의 형식적 구조는 전통적인 모더니즘 구조인 사각의 틀인 연속구조 속에서 각기 분절된 변이 사각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분절된 변이 사각형은 전체 사각의 틀에서 벗어나 각기 새로운 구조로서 또 다른 변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비둘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형식적 구조는 전형적 모더니즘 방식인 연속구조와 후기 양식인 이산구조가 절충되어 있으며 크게 '좌'와 '우'로 분절되고 다시 '좌'는 3개의 단위로 분절할 수 있으며 '우'는 2개의 구조로 분절할 수 있어 전체적인 구조로 보아 중심적 내용이 분열되고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1) 시형상 구성의 분절표

햄비지(J. Hambidge) 표기계를 이용한 통사부의 시형상 수형도 (Tree diagram)



(2) 분절된 통사부의 괄호기술(Bracketed De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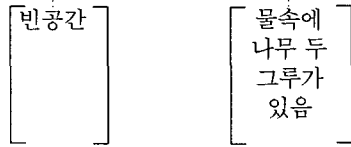
시형상 분절은 다음과 같은 괄호기술을 할 수 있다.

PrN : 담화행정	Is : 시형상주	Iv : 시형상	Dr : 전언자	De : 피전언자
MA : 모멘트 암	PN(a) : 현실화된 담화 계획	Ov : 가치대상	P(c) : 색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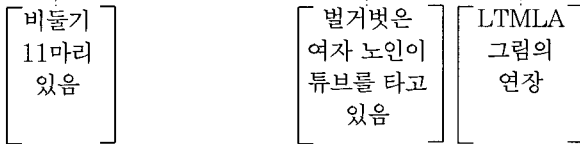
PrN, -LT Is1 = {Iv, f}

Dr1 Is1 ∩ P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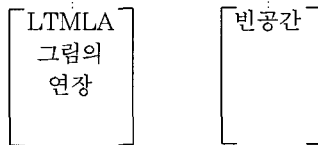
$(s(LT S + 5S + N)^R(LTLT 2S + (3W)^R 4S)^R(LTLT AS + 1/2(W)^R)^R(LTLT ALT 5SN)LTLTALT(LTLT ART S + (W)^{2R}LTLT ART)LTL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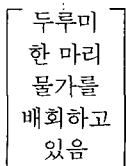
$(LTLTB S + (5S + N)^R)LTLTB(LTML 1/2(3(W)^R)^R(LTMLA 3S)LTMLA(LTMLB O)LTMLB)LTML$



$(LTRT(2S + 1/2(W)^R)^R(LTRTA(3(W)^R + 4S)^R(LTRTALT(W)^{2R})LTRTALT(LTRTART(W)^{2R})LTRTART)LT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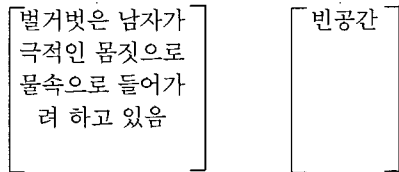


$(LTRT 2S + (3(W)^R + 4S)^R)LTRTB(LTLT)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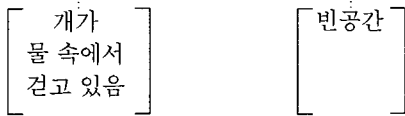


PrN, -RT Is2 = {Iv, f}
 Dr2 Is2 ∩ P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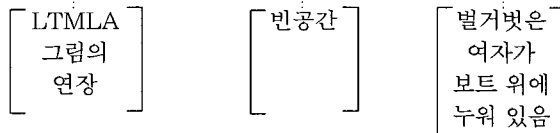
$[s_{(RT1/2N)(RTAM)(RTALT S + [25S + (S+N)^R]^R)RTALT} (RTART S + [10S + (S(N)^R)^R (RTARTA1/2(2S+0)) RTARTA]$



$(RTARTBM)(RTARTBLTW)RTARTBLT (RTARTBRT1/2(S + 1/2(W)^R)^R)RTARTBRT)RTARTB)RTART)RTA$



$(RTB4(W)^R)(RTBLT4S + (N)^R)(RTBLT4(W)^{2R})RTBLTA (RTBLTB2S + [3(W)^R + 4S]^R)RTBLTB (RTBRTN)RTBRT)RTB)RT)s$



3. 작품의 의미부 분석

작품 표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분석은 그레마스 '기호의 사각형' 방법¹³⁾을 적용하여 분석하도록 하는데 방법은 가시적 형식을 이루는 전체를 하부단위로 분절하고 그 분절된 요소들의 결합방식을 통해 전체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분절의 전제가 되는 것은 대립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절된 의미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발생하는데 그 짜여진 관계의 구조망을 분석하여 본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짜임구조를 통한 의미구조를 드러내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전체 작품 구조를 밝혀낸다.

(1) 대립항에 의한 분석

이 작품은 기본 구조 분석과는 달리 의미부는 크게 2개, 세부적으로는 7개의

화면이 하나의 화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분석자의 분석 방법에 따라 크게 2개의 '좌' '우' 화면으로 나누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좌' 화면을 4개의 화면으로 분절하고 '우' 화면을 3개의 화면으로 분절하였는데 모두 7개의 화면으로 분절하여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에 대입시키고자 한다.

가) 좌 화면

네 개의 분절된 화면은 크게 ·물 숲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 화면, ·벌거벗은 여자 노인이 튜브를 타고 있는 화면, ·비둘기 11마리가 있는 화면, ·두루미류의 새가 한 마리 있는 화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각 부분으로 분절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네 화면은 연두색을 배경으로 하나로 연결되면서 각기 다른 이미지를 담는 화면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배치에 의한 대립항

분절된 화면에서 나타나는 배치의 대립항은 다음과 같다.

· 물숲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 화면

- ① 전진성 vs 후퇴성 : 전면에 있는 나무와 물숲은 색채가 짙은 색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진된 느낌이 들고, 후면에 있는 나무와 물숲은 색채가 강하지 않아 후퇴되어 보인다.
- ② 긴장감 vs 이완감 : 전면에 있는 나무와 물숲은 직선과 곡선으로 변화를 주며 세부적 묘사로 말미암아 긴장된 느낌이 들고, 후면에 있는 나무와 물숲은 나무에 곡선으로 변화를 주었으나 세부적 묘사가 없어 이완감이 든다.

· 벌거벗은 여자 노인이 튜브를 타고 있는 화면

- ① 전진성 vs 후퇴성 : 벌거벗은 여자 노인과 튜브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전진된 느낌이 들고, 배경 부분인 물은 구체적이지 않아 후진되어 보인다.
- ② 긴장감 vs 이완감 : 벌거벗은 여자 노인과 튜브는 직선과 곡선의 변화로 묘사되어 긴장감이 들고, 배경 부분인 물은 잔잔한 물결로서 이루어져 이완되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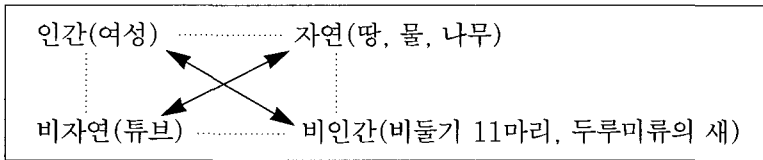
· 비둘기 11마리가 있는 화면

- ① 전진성 vs 후퇴성 : 비둘기의 형태가 뚜렷하여 전진되어 보이고, 땅은 형태가 뚜렷하지 않아 후퇴되어 보인다.
- ② 긴장감 vs 이완감 : 비둘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어 긴장된 느낌이 들고, 배경의 땅은 잔잔하게 처리되어 이완되어 보인다.

13) Joseph Courtes, *La Semiotique Narrative et Discursive, methodologie et application* paris: hachette, 1976, pp. 55-59 참조.

· 두루미류의 새가 한 마리 있는 화면

- ① 전진성 vs 후퇴성 : 두루미류의 새의 형태가 뚜렷하여 전진되어 보이고, 배경의 물과 땅은 잔잔하게 처리되어 후퇴되어 보인다.
 - ② 긴장감 vs 이완감 : 두루미류의 새가 동적인 모습으로 서 있어 긴장된 느낌이 들고, 배경의 물과 땅은 잔잔하여 이완되어 보인다.
-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나) 화면 내용의 서술

네 개의 분절된 화면을 엮어서 전체적 내용을 만들어 보면, 앞면에는 땅위에 비둘기가 모이를 찾아 다니고 있고, 두루미류의 새가 물가를 배회하고 있다. 그리고 물 위에는 여자 노인이 별거벗고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으며 뒷면에는 나무 두 그루와 숲이 있다.

나) 우 화면

세 개의 분절된 화면은 · 별거벗은 여자가 있는 화면 · 별거벗은 남자가 있는 화면, · 개가 물위를 걷는 화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각 부분으로 분절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관점들을 통하여 작품 분석에 들어가면 각기 세 부분으로 작품이 분절되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형태는 전면의 화면에 배치된 ‘별거벗고 누워 있는 여인’이다. ‘별거벗고 누워 있는 여인’은 전면에 위치하면서도 강한 색채의 대비와 형태의 묘사로 말미암아 강하면서도 긴장감 있는 짜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별거벗은 남자의 모습이 눈길은 앞에 누워 있는 여자에게 향하고 있지만 흐리게 묘사되어 다소 긴장감을 늦추고 있고, 개는 화면의 폭이 작아 그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배치에 의한 대립항

분절된 화면에서 나타나는 배치의 대립항은 다음과 같다.

· 별거벗은 여자가 있는 화면

- ① 전진성 vs 후퇴성 : 요트 위에 별거벗고 누워있는 여인은 색채의 대비가 강하게 나타나 전진된 느낌이 들고, 물결은 색채 대비가 강하지 않아 후퇴되어 보인다.

② 긴장감 vs 이완감 : 요트 위에 벌거벗고 누워 있는 여인은 색채의 대비와 형태의 세부적 묘사로 말미암아 긴장된 느낌이 들고, 물결은 세부적인 묘사가 되지 않아 이완감이 든다.

· 벌거벗은 남자가 있는 화면

① 전진성 vs 후퇴성 : 벌거벗은 남자는 형태가 뚜렷하여 전진되어 보이고, 나무, 물결, 땅은 형태가 뚜렷하지 않아 후퇴되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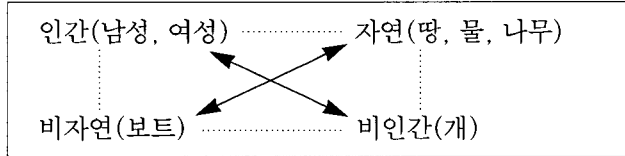
② 긴장감 vs 이완감 : 벌거벗은 남자의 형태가 극적이어서 긴장된 느낌이 들고, 나무, 물결, 땅은 형태가 자연스러워 이완되어 보인다.

· 개가 물위를 걷는 화면

① 전진성 vs 후퇴성 : 개의 형태가 뚜렷하여 전진되어 보이고, 물은 형태가 뚜렷하지 않아 후퇴되어 보인다.

② 긴장감 vs 이완감 : 개의 형태가 움직이고 있어 긴장된 느낌이 들고, 물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아 이완되어 보인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나) 화면 내용의 서술

세 개의 분절된 화면을 엮어서 전체적 내용을 만들어 보면, 전면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물위의 작은 보트 위에서 벌거벗은 여자가 잠든 듯 누워있고, 그 위에 벌거벗은 남자가 나무를 배경으로 하여 극적인 형태로서 벌거벗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옆에는 개 한 마리가 아래 부분의 벌거벗은 여자를 쳐다보며 물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둘기의 삶」의 '좌', '우' 두 개 화면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등장하는 세 장면의 화면과 동물이 등장하는 세 장면의 화면 그리고 자연 풍경이 등장하는 하나의 화면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인간은 나이든 여자 노인과 젊은 여인 그리고 젊은 남자가 등장하면서 각각 나름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튜브를 타고 있는 듯한 여자 노인은 다소 불안한 듯 튜브를 꼭 잡고 있으며 젊은 여인은 보트 위에 누워 자신은 젊은 육체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젊은 남자의 모습은 안경을 끼고 무엇인가를 찾는 듯 두리번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지위와 육체가 갖는 계층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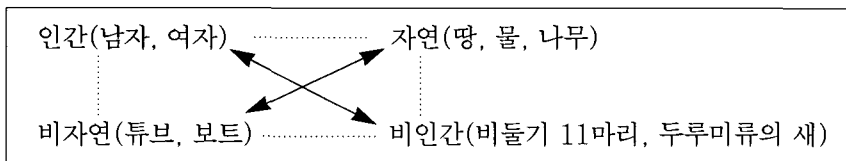
동물들의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동물의 계층을 나타내고 있는 듯 하다. 비둘기는 인간과 접하여 있으면서도 애완용은 아닌 동물이며, 두루미류의 새는 자연 속에서 거닐며, 개는 인간과 밀착된 동물로서 각기 그 특성들을 가지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듯하다.

여기서 전체적 화면에서 나타나는 대립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연:	땅 … 대 … 물
동물:	개 새
인간:	남자 여자
색채:	파랑 빨강
	검정 흰색
음영:	빛 그림자

- 형상을 이루는 면 : 나무, 벌거벗은 노인여자, 비둘기 11마리, 두루미류의 새 한 마리,
대 벌거벗은 남자, 개, 벌거벗고 누워 있는 여자
- 배경을 이루는 면 : 하늘, 땅, 물

이를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표면의 각 형상은 주요 대립적인 항으로서 인간과 자연이라는 의미 구조망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주제상에 있어서 대립의 구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의미망을 분석하려면 이들이 이루고 있는 모든 형태들을 하나의 기호로써 파악하고 각 기호의 형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작품 「비둘기의 삶」의 해석

—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일상적 주체가 분열되는 편린들—

작품 「비둘기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형태를 파악하고, 그 형태

들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의미망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소 직관적인 의미 구조의 파악이 필요하며 앞서 논술한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예비적 검토가 의미망 속으로 들어와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휘슬의 「비둘기의 삶」은 구체적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석될 것 같은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에 접근하여 보면 다중적 코드가 설치되어 있어 쉽게 해석될 것 같은 느낌은 작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존의 이론과 관념적인 틀로서는 쉽게 해석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쉽게 해석해 낼 수 없다는 것은 텍스트 스스로 내부적 부조화나 분열 그리고 차연의 관계를 통하여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 「비둘기의 삶」은 일곱 개의 서로 다른 화면구조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는데 첫 번째 화면은 나무 두 그루와 물숲이 있는 화면이고, 둘째는 여자 노인이 튜브를 타고 있는 화면이며, 세 번째는 비둘기 11마리가 있는 화면이다. 네 번째는 두루미류의 새 한 마리가 있는 화면이며, 다섯 번째 화면은 작은 보트 위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확연하며 햇볕 아래 의도된 형태를 유지하는 여인이 누워 있는 화면이다. 여섯 번째 화면은 땅과 나무가 뒷 배경인 물가에서 벌거벗은 남성이 극적인 형태로서 눈빛을 밝히며 어딘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화면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면은 개가 물 속에서 어딘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형상이다. 여기서 중심 화면이 없이 일곱 개의 화면이 각기 대등한 위치로 분절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연과 함께 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여자 노인, 뭔가 보려고 하는 남자, 온몸을 드러내며 여가를 즐기는 젊은 여자 이 모두가 자연과 같이 하며 일상을 즐기는 삶의 모습들이다. 그 사이에 동물들이 끼어든다. 여기서 동물들은 인간과 가까이 있기도 하고 인간과 일상을 같이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소비 자본주의의 여가와 유흥의 일상사가 일곱 개의 화면에 표현되어있는 것이다.

분리된 일곱 개의 화면은 마치 한 화면으로 연결되는 듯 하다. 같은 시각 비슷한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일곱 개의 화면은 서로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서로 간에 틈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상상력은 감상자의 몫으로 돌려 놓는다.

한편으로 일곱 개의 화면은 삶의 일상을 찍어놓은 사진과 같다. 이러한 화면들은 각각 우연적이면서 필연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여가가 주는 한가로움을 한껏 누리고 있는 듯 하다. 여기서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 여자와 남자 ... 등이 펼쳐는 여러 가지 삶의 표정들을 통하여 중심 없는 잠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세트의 스냅사진과 같은 여러 장면들은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져 있으면서 서로 상호관계를 하고 하나의 서사를 이룬다. 곧 각기 일상적 행위를 담아놓은 사진의 편린들이지만 그것은 사진을 펼쳐놓고 억지로 맞춘 것과 같은 구조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쳐놓는 담론 구조의 작품을 보여주기도 한다.

「비둘기의 삶」은 중층적인 의미구조를 통하여 감상자의 분열을 노린다. 이는 하나의 의미축 위에서 감상자가 일곱 가지의 장면을 재배열하거나 파헤칠 수 있게 장치한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중층적인 의미구조의 장치를 통하여 재배열하고 분석하여 파헤치면서 의미를 구축하려는 감상자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그 곳에서 길을 잃게 한다. 이는 모더니즘 작품에서 나타나는 중심 주제인 주체가 확인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다. 이 작품에서는 중심 주제인 주체가 일곱 개의 화면으로 나누어져 각기 나름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주체들은 상호 작용에 의해 복수의 다층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중심 주체는 '분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함의와 우의를 보면 벌거벗은 여인들의 모습은 스스로 벗겨낸 소비사회의 허위 의식이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권력에 의해 형상화된 의미들이 영커 만들어진 물신화된 환영으로서 보인다. 남자의 모습은 권력과 물신화된 환영을 향하여 끝없는 궁금증을 가지는 자기 모순에 빠진 현대인이다. 새들은 일상의 꿈과 염원을 지니고 있다. 개는 남자와 같은 직접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물신화된 환영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서는 거부감 없는 애완용 또는 충실한 개로 위장한 부루조아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우리의 현실은 항상 누구에겐가 시선이 포착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감시자가 사람이 아닐 때에는 주변의 동물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은밀한 생활상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나라는 주체는 나 혼자만의 단독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주변의 존재자들과 함께 관계하는 분열되는 주체이며 분열된 주체의 관계가 계급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우리 삶의 편린들이 이미지화되어 이리 저리 맞추어져서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세계가 그물망과 같은 여러 가지 주변적 사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그 속에 나라는 주체는 이리저리 관계하는 분열된 자아상을 보여준다. 세계가 그림으로도 해석된다고 한다면 세계는 사물들의 사건들을 이것저것 채집하여 조립한 것이고, 또 그러한 사물과 사건들의 차이를 통하여 분열되기도 하고 다시 통일되는 연속과 분열의 반복임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세계의 분열과 통일의 세계를 상징과 알레고리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에릭 휘슬의 작품 「비둘기의 삶」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비둘기의 삶」은 여러 연구자들이 해석한 ‘옛보기’ ‘에로티시즘’ ‘미국 중산층의 일상성’ … 등 다양한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일상적 주체가 분열되는 편린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작품의 기본 형식구조는 이전의 모더니즘 형식구조에서 벗어나 후기 모더니즘에서 언급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서로 화면을 분절시키거나 엇대기를 통하여 변이적인 화면 형식의 양상을 보여주며, 나아가 주체가 일곱 개의 공간으로 분열되는 등 작품의 형식에서 중심 ‘주체가 분열’ 되는 상황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의 주체 분열을 볼 수 있다. 첫째, 모더니즘 미술표현까지 확고한 주체의 중심이 있던 화면의 형식들이 엇대기, 겹치기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화면들이 조합되면서 중심 되는 화면의 주체가 없는 분열되는 화면의 형식을 볼 수 있다.

둘째, 모더니즘 미술표현까지 화면에 확고하던 내용성들이 여기서는 산재되어 일상사가 중심 주체의 내용 없이 채집되며 기록되고 있다.

셋째, 작품에서 나타나는 소재들이 알레고리와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석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주체의 해석이 없이 다의적 복수성으로 해석되면서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형상의 분절에 의한 분석과 대립항을 통한 그레마스 사각형의 방법론을 통한 분석에 있어서도 기호 이미지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후기 예술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열된 자아와 욕망의 기호들이 그 의미망을 구성하며 주체가 분열되면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비둘기의 삶」은 후기 예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통하여 분열되고 통일되는 자아와 주변의 관계성이 ‘주체의 분열’로서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성곤, 『탈구조주의 이해』, 민음사, 1988.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0.
-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 김종욱, 『하이데거와 근대성』, 철학과 현실사, 1999.
- 자끄 데리다, 『해체』, 김보현 번역, 문예출판사, 1996.
- 장 마리 플로슈, 『조형기호학』, 박인철 역, 한길사.
- 『르 코르뷔지에의 생애:건축과 신화』 최명길·민영해 역, 기문당, 1997.
- 『미국 포스트모던 대표작가 4인전』 도록, 중앙일보사, 1993.
- 서성록 편, 『포스트 모던 미술과 비평』, 승례문, 1993.
- 『알퇴세르와 라캉』, 윤소영 역, 도서출판 공감, 1996, p.275.
- Bell, Clive. The Aesthetic Hypothesis, in Art, Chatto and Windus, 1931, Clement Greenberg, 'Modernizing Painting', 「Art and Literature」 4, Spring 1963.
- Cotter, Holland. 「Postmodern Tourist」, Art in America, 1981.8.
- Courtes, Joseph. La Semiotique Narrative et Discursive, methodologie et application, paris:hachette, 1976.
- Fineberg, Jonathan. Art Since 1940, Calmann & King, Ltd, London, 2000.
- Greimas, A. J. Les acquis et les projets, J. Courtes, Introduction a la semiotique narrative et discursive, paris:Hachette Universite, 1976.
- Hambige, Jay. The Elements of Dynamic Symmetry, New York: Dover, 1953.
- Hopkins, David After Modern Art 1945-20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Modernist Painting, Art and Literature , no.4 , spring 1965.
- Schjeldahl, Peter. 「Eric Fischl」, New York, 1988, Illustrated in color Modernism and the primacy of form, Abstract of Content, A Contemporary Focus, Howard N. Fox, eds.
- Strickland, Carol. The Annotated Mona Lisa, a course in art history from prehistoric to postmodern, John Boswell Management

Inc., 1992.

Tourain, Alain. 『현대성 비판』, 정수복·이기현 옮김, 문예출판사.

Washington, D.C : Hirshhorn Museum, 1984.

■ Abstract

A Structure Analysis & Interpretation of Eric Fischl's 「The Life of a Dove」

Oh, Se - kwon

(Doctor's course, Dept. of Science of Art & Design)

「The Life of Pigeons」 consists of seven different canvases without a leading image. It contains fragments of disassociated ordinary subjects from a capitalistic and consuming society. In this respect, the text itself attains multiple meanings throughout with inner disharmony, disassociation and relationships of differences.

The divided seven images look as if they are connected as one and are connected events that a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and in similar places. A liberal interpretation of this work is given to viewers when the seven canvases have both relations and gaps at the same time.

「The Life of Pigeons」 attempts the viewer's disruption through its middle stratum of meaning structure, which is a device for viewers to rearrange and deeply analyze the seven images. As a result, the artist allows the viewers to get lost in self-contradiction.

A fundamental formal structure adopting post-modernism and abandoning modernism is what we can detect with detailed analysis of the work. For instance, changing surface style appears by dividing or putting images in obliquely, furthermore it clearly shows that the main subject is divided in form such as the subject's division into seven spaces.

There ar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First, the form of the images is divided and composed through oblique and overlapped images. Second,

the main content of the subject tends to be scattered. Third, the subjects are interpreted in multiple meanings due to their allegory and symbolism.

The inquiry of 「The Life of Pigeons」 proves that it takes a post artistic spirituality as its basis and its subjects are divided by the differences and surrounding relationships.

부록

통사부 분석: 계열체와 결합체 분석

구분	배열	0	LT	LT A	LT A LT	LT A LT	LT B	ML
LT	S	14.9/17.2	6.9/14.9	6.9/9	0.4/9	6.59	5.9/6.9	4/14.9
	R	0.8663	0.4631	0.7667	0.4444	0.7222	0.8551	0.2684
	PAR	$S + \{5S + N\}^R$	$2S + \{3(W)^R + 4S\}^R$	$\{S + 1/2(W)^R\}^R$	5SN	$S + \{W\}^{2R}$	$S + \{5S + N\}^R$	$1/2\{3(W)^R\}^R$
	위치점	14.9/17.2 0.8663	6.9/17.2 0.4012	9.0/14.9 0.6040	0.4/6.9 0.0580	6.5/6.9 0.9420	5.9/14.9 0.3960	4.0/17.2 0.2326
	SYN	18	0	15	9	14	1	2

구분	배열	ML A	ML B	RT	RT A	RT A LT	RT A RT	RT B
LT	S	4/12.1	2.8/4	6.3/14.9	1.2/6.3	1.2/3.1	1.2/3.2	6.3/13.7
	R	0.3306	0.7	0.4228	0.2	0.3871	0.375	0.4599
	PAR	3S	O	$\{2S + 1/2(W)^R\}^R$	$\{3(W)^R + 4S\}^R$	W^{2R}	W^{2R}	$2S + \{3(W)^R + 4S\}^R$
	위치점	12.1/14.9 0.8121	2.8/14.9 0.1879	6.3/17.2 0.3663	1.2/14.9 0.0805	3.1/6.3 0.4921	3.2/6.3 0.5079	13.7/14.9 0.9195
	SYN _Y ^X	13	20	24	9	5	4+5 COM	14

C=3.7037, Qc(X)=1.4884, SYN24제도

구분	배열	0	A	A LT	A RT	A RT A	A RT B	A'''LT
LT	S	14.6/16.1	8.3/16.1	8.3/8.5	7.6/8.3	4.5/7.6	3.8/7.6	3.8/6.1
	R	0.9068	0.5155	0.9765	0.9157	0.5921	0.5	0.6230
	PAR	1/2N	M	$S + \{2S + (S + N)^R\}^R$	$S + \{10S + (S + N)^R\}^R$	$1/2\{2S + 0\}$	M	W
	위치점	14.6/16.1 0.9068	8.3/14.6 0.5685	8.5/16.1 0.5280	7.6/16.1 0.4720	4.5/8.3 0.5422	3.8/8.3 0.4578	6.1/7.6 0.8026
	SYN	19	0+2 COM	0+1 COM	7+9 COM	1	7	3

구분	배열	A''' RT	B	B LT	B LT A	B LT B	B RT	
LT	S	2.5/3.8	6.5/16.1	1.4/6.5	1.4/3.5	1.4/3.0	6.5/14.7	
	R	0.6579	0.4037	0.2154	0.4	0.4667	0.4422	
	PAR	$\{1/2(S + 1/2(W)^R)\}^R$	$4(W)^R$	$4S + \{N\}^R$	$4(W)^R$	$2S + \{3(W)^R + 4S\}^R$	N	
	위치점	2.5/7.6 0.3289	6.5/14.6 0.4452	1.4/16.1 0.0870	3.5/6.5 0.5385	3.0/6.5 0.4615	14.7/16.1 0.9130	
	SYN	12	0	20	17	7	8	

C=2.7778, Qc(X)=1.2401, SYN20제도

1) 비둘기의 삶 MA · P(C)표

사항 구분	LT A			LT B			ML A			RT B		
	구별소	MA	C	구별소	MA	C	구별소	MA	C	구별소	MA	C
LT	물 속에 나무 두 그루가 있음.			비둘기 11마리 있음			별거뻐온 여자노인이 튜브를 타고 있음			두루미 한 마리가 물가를 배회하고 있음		
	나무	3.7	10Y 3/1	비둘기	5.1	5GY 5/1	여자	9.4	10YR 8/4	두루미	6.4	2.5GY 6/2
	풀	4.1	10Y 3/2	물(밝은 부분)	9.4	7.5GY 7/6	튜브	10.4	7.5YR 8/6	물(밝은 부분)	11.7	7.5Y 8/8
	풀	13.1	2.5GY 8/10	(어두운 부분)	5.4	2.5GY 5/2	물	12.4	7.5Y 7/10	(어두운 부분)	6.4	2.5GY 5/4
	P(c)	L ^M		P(c)	INT ^M		P(c)	INT ^M		P(c)	INT ^M	

사항 구분	RTALT			RTARTBLT			RTBLTA			RTBRT		
	구별소	MA	C	구별소	MA	C	구별소	MA	C	구별소	MA	C
RT	발가벗은 남자가 극적인 몸짓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음.			개가 물속에서 견고 있음.			땅이 있음			발가벗은 여자가 보트 위에 누워 있음.		
	사람(남자)	6.4	10YR 6/2	개	6.2	5GY 6/1	땅	9.4	10Y 8/4	사람(밝은 부분)	8.8	10YR 8/2
	나무	13.1	2.5GY 8/10	물(밝은 부분)	8.6	5GY 8/1				(어두운 부분)	3.7	10YR 3/1
	땅	10.0	10Y 9/2	(어두운 부분)	4.2	5GY 4/1				보트(밝은 부분)	9.7	10G 9/2
	물	4.5	5GY 4/2							(어두운 부분)	5.7	10PB 4/4
	P(c)	L ^M		P(c)	INT ^M		P(c)	INT ^M		P(c)	INT ^M	

NEW MOON-Spencer's MA = [C² + {V² + (V-5)²}]^{1/2} 적용